



- 경제 이슈 :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  
OECD,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 경영 노트 :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
- 사회 트렌드 : 한국인 10명 중 2명만 정부 믿는다
- 저널 브리프 : 훌륭한 연설의 조건
- 금주의 도서 :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
- 洗心錄 : 격탁양청(激濁揚清)

□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

-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수출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모습
  - 내수 : 소비는 3월말 신차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 통신사 영업규제 등으로 1/4분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4월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
  - 수출 : 4월 중 수출은 대부분 지역과 품목에서 증가세를 시현하며 전년동월비 9.0% 증가하며 회복흐름을 유지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 역시 44.6억 달러로 높은 수준 지속
  - 고용 : 3월 중 고용시장은 신규 취업자 증가폭이 전월의 83.5만 명에 비해 다소 축소된 64.9만 명을 기록
  
- 향후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소비심리 위축, 미 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회복 흐름이 영향을 받을 우려

□ OECD,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 OECD는 5월 6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하고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조정
  - 세계 경제 :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성장세 둔화 전망 및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201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에서 3.4%로 하향조정
  - 주요국 경제 : OECD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2%로 하향조정. 미국은 2.6%(-0.3%p), 일본은 1.2%(-0.3%p), 유로존은 1.2%(+0.2%p) 성장률 전망
  - 한국 경제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4.0%, 2015년 4.2%로 기존 전망치에서 각각 0.2%p 상향 조정.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및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투자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재정긴축, 유로존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의 하방위험 요인들이 상존

□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sup>1)</sup>

- 퍼실리테이션은 20세기 후반부터 경영·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
  -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은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촉진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facile’에서 유래
  - 중립적인 위치에서 집단의 활동에 관여해 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행동을 의미
  - 경영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효율적인 미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
  
- 최근 조직의 지속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 크게 주목받고 있음
  - 퍼실리테이티브(facilitative) 리더십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팀 전체가 협력해서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
  -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신중한 방법과 협업적 혁신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서 결과적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유도
  - 구성원의 헌신과 참여를 높이고 자기변화를 유도해서 업무에 더욱 몰입하게 하고, 구성원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

<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의 역할 >

	내 용
<b>팀 리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의 목표와 수행하는 업무, 구성원들의 역할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리</li> <li>• 다양성 이해, 중립적인 태도 유지, 관계형성 능력, 프로세스 계획, 집단의사 결정능력이 필요</li> </ul>
<b>변화 촉진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적인 사고와 동기부여 능력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li> <li>• 리더에게는 조직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능력이 요구</li> </ul>
<b>코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들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대신 호통을 치기 일쑤이고, 사람을 육성하는 ‘코칭’ 대신 지시와 통제 중심의 ‘티칭’을 하기 마련</li> <li>•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구성원들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수행</li> </ul>

1) ‘예측하고 코칭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라. 리더는 촉진자여야 한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4.04.30)를 요약 정리함.

□ **한국인 10명 중 2명만 정부 믿는다**<sup>2)</sup>

- 정부의 세월호 침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10명 중 2명 정도만 정부를 믿는다는 국제비교 통계가 나옴
  - OECD는 34개 회원국과 러시아·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의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
  - OECD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회통합과 국민복지·안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국에선 불과 23%의 국민만 정부를 신뢰한다"고 지적(OECD 평균은 39%)
  - 조사 대상국 가운데는 29위로,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는 경제위기로 시위가 잦은 그리스·스페인이나 후쿠시마 원전의 악몽이 가시지 않은 일본 같은 곳이었음
  - 지난해에는 한국인의 24.8%가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음
  
- 삶의 질도 열악
  - 미세먼지 농도가 m<sup>3</sup>당 30.3 $\mu$ g(마이크로그램)으로 OECD 평균(20.1 $\mu$ g)보다 훨씬 높음
  - 이렇다 보니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로 OECD 평균(69%)의 절반 정도였음
  - 환경 부문에서 30위, 건강 부문에서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이유임
  - 한국인이 봉사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 1분으로 OECD 평균(4분)에 한참 못 미쳤음. 이런 수치를 반영한 공동체 부문의 순위는 34위였음
  
- 일과 삶의 균형도 최하위권(34위)을 벗어나지 못했음
  - 한국 남성이 하루에 청소나 요리와 같은 가사에 할애하는 시간은 불과 45분(OECD 평균 141분)
  - 일하는 시간(연평균 2,090시간)이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긴 탓도 있음
  
- 이외에 주택 부문은 20위, 소득은 23위, 고용은 14위, 교육은 4위, 시민 참여는 3위, 삶의 만족은 25위를 기록
  - 특이하게 안전 부문에서 6위로 평가. 이러한 좋은 평가는 이번 조사가 세월호 사고 이전에 이뤄진 데다 경찰에 신고된 상해율과 살인율만 따졌기 때문
  - 살인율은 10만 명당 1.1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훨씬 적었음

---

2) '한국인 10명 중 2명만 정부 믿는다'(중앙일보, 2014.05.08)를 요약 정리함.

□ 훌륭한 연설의 조건<sup>3)</sup>

○ 세계적인 강연 프로그램 테드(TED)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훌륭한 연설은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님

① 감정을 설득의 도구로 사용

- 청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설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
- 「우리는 불의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강의를 진행한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주제와 다소 무관해보이지만 청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할머니’에 대한 얘기로 강연을 시작하여 청자들의 공감대를 확대
- 연설 시간의 65%를 감성적인 호소에 사용했지만 탄탄한 논리로 구성된 어떤 연설보다도 효과적으로 청자를 설득하며 테드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립박수를 받음

② 새로운 생각과 정보를 참신하게 전개

- 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생각이나 정보를 참신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
- 「말라리아가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이란 강의를 진행한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말라리아가 모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모기로 가득 차있던 유리병 뚜껑을 강연 도중 개봉하여 청중들을 놀라게 함
- 작은 소동을 통해 청중들의 관심을 한눈에 사로잡는데 성공함은 물론, 청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공포를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만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야한다는 법은 없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③ 시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

- 텍스트로만 구성된 강의를 듣는 청자는 전달된 정보의 10%만을 습득하지만 이미지를 활용한 강의는 65%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 연설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
- 「타이타닉호의 발견」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로버트 발라드는 아무런 설명 없이 57장으로 구성된 해저 사진만을 청중들에게 보여줌
- 사진이 전달하는 생경한 풍경을 접한 청중들은 아무런 연설이 없었음에도 그의 강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

---

3) 'What I Learned Watching 150 Hours of TED Talks'(하버드비즈니스리뷰 블로그, 2014.04.11), '테드 특스의 교훈'(newspeppermint, 2014.04.13) 참조.

□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sup>4)</sup>

짐 로저스는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의 बै리올 칼리지(Balliol College)에서 정치·경제·철학을 전공하였고, 1969년에 조지 소로스과 퀴텀펀드를 설립하여 4,2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 그 후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재무학을 가르쳤고, 세계적인 미디어 평론가로 활동. 주요 저서로는 월가의 전설, 세계를 가다, 어드벤처 캐피탈리스트, 상품시장에 투자하라 등이 있음

○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

-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세계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감. 영국은 금융위기와 잘 못된 정치 탓에 패권을 상실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함
- 이제 패권은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음. 미국도 똑같은 이유로 패권을 상실하고 있지만,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

○ 중국, 통일 한국, 미얀마의 부상

- (홀륭한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중국) 중국이 점차 세력을 넓혀가면서 세계적으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 (통일한국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 북쪽의 값싸고 숙련된 노동자와 천연자원이 남쪽의 자본, 기술, 경영 능력과 결합하면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
- (미얀마의 변화) 미얀마는 2013년 동남아시아게임 개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신흥국으로 도약

○ 미래 경제는 농업이 주도

- 농촌 인력 부족, 농부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최근 몇 년 동안 식량 소비량이 생산량을 추월하면서 식량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미래에는 금융보다 농업이 훨씬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될 것임

○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가격을 통제하려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음
-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도 어리석고 무능한 정치인들로부터 비롯됨

○ 세계 경제는 창조적 파괴 시스템이다

- (새로운 것이 일어나서 낡은 것을 대체) 한편에서는 국가, 기업, 가족, 개인들이 융성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기업, 가족, 개인들이 쇠퇴
- 따라서 인위적인 행위보다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

---

4) 짐 로저스 지음, 이건 옮김,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 이레미디어, 2014.

## □ 격탁양청(激濁揚淸) : 흐린 물을 몰아내고 맑은 물을 끌어들이다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는 올해의 활동목표를 '격탁양청(激濁揚淸)'으로 정했다. 격탁양청은 흐린 물(濁流)을 몰아내고 맑은 물(揚淸)을 끌어들이는 뜻으로, 악을 제거하고 선을 떨침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는 당서(唐書)의 왕규전(王珪傳)에서 나온 사자성어로 당 태종(太宗)이 중인인 왕규와 나눈 대화에 등장한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방현령, 이정, 온언박, 대주, 위징과 왕규가 함께 국정을 관장하고 있었다. 태종이 왕규에게 물었다. “경은 분별력에 정통하고, 담론(談論)을 좋아하니, 방현령 등을 품평해 보시오. 그로서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는 현명함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요.” 왕규가 대답했다. “열심히 나라를 받들고, 아는 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신이 방현령에 미치지 못합니다. 재능과 문무를 겸비하여 밖으로는 장수로, 안으로는 재상의 역할을 수행함에는 신이 이정에 미치지 못합니다. 군주에게 진언하고 명령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함에 있어서는 신이 온언박에 미치지 못합니다. 번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고, 많은 사무를 받드시 시행함에는 신이 대주에 미치지 못하며, 간언을 하며 마음을 쓰고, 군주가 요순(堯舜)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게 여기는 것에는 신이 위징만 못합니다. 그러나 방탕하여 흐려진 것을 몰아내고, 청정한 기운을 들어오게 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에서는 신이 여러 신하들보다 나으니, 이 또한 하나의 장점입니다.”

2013년 반(反)부패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77개국 중 46위를 차지했으며, OECD 34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전경련에서 '격탁양청'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경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인은 스스로를 낮춰 남의 뒤에 머물기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으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살린다.**

- 노자, 도덕경(道德經)